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중인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실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 특혜 VS 난개발 예방 위한 국가시책사업

“농사도 짓지 않는 국립대 교수가 2006년도에 농지를 매입하고, 보상도 못 받게 방해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땅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봐요.”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에서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A(81)씨는 “40년 넘게 평생 농업으로 살고 있는 땅을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야 보상 받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농사도 짓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시민단체가 어떻

게 저런 투기꾼들의 편을 들고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보상 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준비해야 하는데 반대투쟁위는 별의별 방법으로 역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순천시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간의 견 대립에 이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

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순천의 경우 땅 소유자 10여명의 반대에 맞서 A씨 등 4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1999년 사유지 공원지역을 풀어 주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2000년도 말경부터 땅을 매입했던 투기꾼들이 보상 반대를 하고 있다”며 “환경생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행정소송중인 23명중 20명은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22일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한데 이어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순천시장과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감 위법 투성이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

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다”며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16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며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양건설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정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돼 지난 8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

다. 순천=김승호기자



‘한 걸음씩 천천히’ 2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학생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이해 및 인식 변화 조성’을 위한 장애 체험 행사에서 학생들이 안내를 착용하고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2개월 아이 숨지자 냉장고에 2년 방치 비정한 엄마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2개월 된 남아 1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하고, 다른 두 자녀를 쓰레기와 함께 방 안에서 생활하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지사와 사체는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

설에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참조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으며, 10월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진 뒤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7살과 2살배기 자녀가 쓰레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두 아이에 대해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두 아이는 즉시 쉼터로 옮겨졌으며 검찰은 이들 납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 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를 예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입

“나라 지키겠다” 부실식사 군훈련소...실태조사

인권위 “훈련병 기본권 제한 여부 살필 것”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 진정도 조사중
‘군대 부실식사’ 논란에...“정책적 대안 필요”



지난 1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휴가를 다녀온 이후 격리 조치된 군인이 올린 식판 사진과 게시물.

최근 군부대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훈련소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사단신병교육소 등 군 훈련소를 상대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입

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

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각 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실시된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군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 관련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에서 격리 조치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자신을 육군 소속 군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격리 병사들이 먹는 식사 사진을 올렸다.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도시락 용기에 흰 쌀밥과 김치 일부와 절인 오이지, 닭볶음료로 추정되는 반찬 3가지만 담겨 있어 식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육군 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